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숲 해설 상’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한 제7회 전국 숲 해설가 경연대회에서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숲 해설 프로그램과 숲 해설 부분에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 숲 해설 경연대회는 최근 충주 건설경영연구소에서 ‘숲은 나눔의 씨앗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대회는 숲 해설가의 역할과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숲 해설 우수사례 발표와 시연, 프로그램 개발, 교육 경진대회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올 1년간 전국 300여 단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참가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 개발 부분과 숲 해설 2개 부문에 참가했다.

김경선 숲 해설가가 유아 숲 체험학교 경험을 살려 ‘나뭇잎은 나무 입’이라는 개발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숲 해설 부문에서는 박계순 숲 해설가가 ‘식물에서 배우는 행복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병선 소장은 “유아 숲 체험학교를 지속해서 운영해 유아들에게 숲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품고 사는지 알려고 자연을 통한 유아들에게 지·덕·체의 인성교육을 숲에서 배울 수 있도록 숲 체험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기자 kroh@

광주도시공 ‘사랑의 김장’ 전달



광주도시공사(시장 흥기남)는 지난 16일 도시공사 사옥 1층 로비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김장김치 전달 행사를 가졌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장애인축구팀 ‘어울림 축구대회’



광주장애인축구팀의 전국장애인체전 3연패를 기념하는 ‘어울림 축구대회’가 지난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구보건복지협 ‘농어촌 선남선녀 만남’ 행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신순철)는 최근 목포 외달도에서 제1회 전남 농어촌 선남선녀 만남 행사 ‘함 사세요(함께 사랑하는 세상 만들어요)’를 개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제공)

“농촌 안내하다 마을주민 다 됐어요”

광주·전남 농어촌 마을 홍보... 목포대 이미희 씨

“농촌은 농사만 짓고 재미있게 즐길거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깨끗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래서 소중한 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제가 새롭게 발견한 농촌은 그런 곳이에요.”

턴생활이 끝난 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를 손녀처럼 애써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재학 중인 이씨는 담양에 있는 마을까지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점심 때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무안군 청계면에 위

담은 사진을 찍고 무월마을을 알리는 자료를 정리해 현재 제작 중인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는 낯선 장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직접 기른 나물만찬의 씹사름한 맛도 거부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고, 후덕한 마음으로 주섬주섬 식사를 함께 하며 어느덧 ‘인턴대학생’이 아닌 ‘무월마을가족’이 됐다. 그리고 인턴생활이 끝난 지금도 마을 주민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저희 무월마을’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마을주민’이 이미희 씨는 영광군 흥농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생활한 다른 인턴대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은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농촌체험프로그램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촌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 마을에 놀러갈 계획인데 ‘인턴대학생’이 아닌 손녀로 어르신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 목포대·동신대 등 학생 12명 인턴 선발

8~10월 체험관광마을 파견... 관광객 안내·SNS에 홍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권협력단(단장 최길산)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목포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지역 학생 12명을 인턴으로 선발해 농촌 테마마을과 어촌 체험관광마을에 파견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약 두달 동안 주민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SNS를 통해 농어촌마을 알리기에 앞장섰다.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에서 인턴활동을 끝내고 최근 최종보고회를 마친 이미희(여·21)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까지 가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어르신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며 “인

턴생활이 끝난 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를 손녀처럼 애써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재학 중인 이씨는 담양에 있는 마을까지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점심 때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목포대 기숙사에서 무월마을로 가기 위해서 두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마을로 가는 버스가 많지 않아서 도착하는데까지 세시간이나 걸렸지만 언제나 자신을 반겨주는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즐거웠다고 말했다.

인턴기간 동안 이씨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천연염색을 하고 대나무를 직접 베어 대포밥도 만들었다. 관광객들과 함께 한 ‘대나무 물총 만들기’는 무더운 여름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다.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독립군 후손’이 모은 사료 3300점

심정섭씨, 친일행적·독립운동사 민족문제연구소 기증

“죽기 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게 그저 좋습니다. 역사를 알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친일행적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자료를 모으는 데 평생을 바친 광주지역 ‘독립군 후손’ 심정섭(71)씨가 방대한 양의 사료를 민족문제연구소에 기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심씨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제강점기 도서류와 신문, 서간 등 근현대사 자료 3300여점을 연구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대한민국의심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백강(白岡) 조경환 선생의 외손자이자 향토사학자이다. 지난 2008년에는 독립운동과 친일파에 관한 자료를 모아 ‘망국의 통탄(痛恨)’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역사와 관련된 책을 사기 시작한 고등학생 때까지 모은 자료만 해도 이미 1000점이 넘었다.

심씨가 지금까지 모은 사료는 5000점 이상



심씨는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사의 울분과 설움을 제대로 알아야 일제강점기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본부, 내일 실천대회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운동본부(본부장 장병완 국회의원)가 19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대회’는 장애인, 자원봉사자, 후원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3시 광주 남구 문예회관 2층에서 ‘도움과 나눔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리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범 장애인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오광동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장애인 먼저 시민 실천상’을 비롯, 인성 모범 장애인 학생 표창, 장애인복지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특수학교 모범 교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병완 본부장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 모두가 ‘장애인 먼저’ 운동을 실천수범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소년 노동자 인권 위해 법대생들 뭉쳤다

전남대 법전문대학원 김광민·김현아·김민욱씨 책 발간

배달 과정에서 각종 사고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전남대 법전문대학원생들이 발간했다.

사장과 고객들에게 항상 빨리빨리라는 말로 재촉당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인권단체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전남대 법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나섰다. 김광민(3년)·김현아(3년)·김민욱(2년)씨(사진 왼쪽

부터)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달리는 가 하면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배달 노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상 문제에 관한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안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소수자 중 하나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 ‘복지행정상’

광주시 북구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 실시한 ‘2013 장애인복지부분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건복지부가 전국 246곳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구는 그간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 맞춤형 재활건강서비스 ▲일자리 창출 ▲교육·여가·문화 활동 강화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앞장서왔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 북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영선(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부장)·김란주씨 장남 형근(LG이노텍)군 김명호·정 현씨 장녀 지혜(전남지방경찰청)양=24일(일) 오후 1시 20분 수어서비스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김홍재·황순희씨 차남 범진군 김영우·이재심씨 막내 미향(광주일보 문화사업국)양=24일(일) 오후 1시 30분 동대전컨벤션웨딩홀 4층 에스튼하우스.

▲정길주(자연관광여행사대표)·고숙자씨 차남 황중(서구청)군 안종정(전 대창석유)·노석순씨 장녀 소미(북구청)양=23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어서비스웨딩컨벤션(구 경복궁) 2층 크리스탈홀.

▲김동욱·이숙경씨 장남 필성군 박중규(광주도시철도공사 양동역장)·정은하씨 장녀 승민양=24일(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중앙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19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을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

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친환경농업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술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일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

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 홈 생활교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생활교사를 모집. 2교대 근무이며 5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062-385-1391.

▲살레시안 가족학당단원 모집(단장 니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한 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교생·중학생부·고등학교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

림동 샘심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빌딩 2층 1층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부음

▲김형대씨 별세 응기·황기·운숙·미숙·미영·미라·미선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조선태병원 장례식장 2

분향소 062-231-8902.

▲반춘례씨 별세 안양섭·군자·금숙·장숙·동숙·정숙씨 모친상=발인 19일(화) KS병원장례식장 1분향소 062-960-4444.

▲서복임씨 별세 김형동·형훈·인숙·미숙·형화·미라·경혜씨 모친상=발인 19일(화) 조선태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이순례씨 별세 김병선(광주 남부경찰서)씨 빙모상=발인 19일(화) 나

주한국병원 1분향소 061-334-4111.

▲오순덕씨 별세 송길화(전 광주교총 회장)씨 모친상=발인 19일(화) 신가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962-4444.

▲김진수(전 보성고등학교 교장)씨 별세 응주(사업)·용재(원더플레이스 본부장)씨 부친상=발인 18일(월) 서울송도병원 장례식장 010-4634-598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조인석 님(남/76세) 子/子婦: 조용선/문 자 용훈 女/婿: 조선미/이우용 未亡人: 신영란 ●호 실: 201호 ●발 인: 11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981	402호 故안순정 님(여/98세) 子/子婦: 황승만/김혜순, 승관/박미정 女/婿: 황춘희/이광수, 선희/김승민 ●호 실: 402호 ●발 인: 11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박정남 님(여/89세) 子/子婦: 최종식/이정원, 중수/최경미 女/婿: 최순희/김남진 孫: 최철원, 현숙, 현동 ●호 실: 101호 ●발 인: 11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985	102호 故구경립 님(여/86세) 子/子婦: 양진순/이정순, 선순/박석희 女/婿: 양진미/김주승 ●호 실: 102호 ●발 인: 11월 19일 ●장 지: 능주성당 ●연락처: 227-4386

매우 고귀한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